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세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smchurch>), (밴드: [순천성문교회](#))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55번째 이야기]

[성문교회 입당 감사 예배 2019.4.2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4:12)”

사람의 생각과 힘 으로는 절대 지어질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세워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하고자 4월 27일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늘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셨던 사모님들, 다과준비에 힘써주신 가족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귀한날 여러곳곳에서 사랑의 손길로 섬겨주신 한분한분들이 계셨기에 은혜로 예배를 드릴수가 있었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모두 오셔서 기쁜날 한마음으로 주께 예배함이 감사했습니다.



연향동교회 근처에 풍선 이벤트사업 하는 곳이 있다. 몇 년전 이곳에 풍선 몇가지 사려갔다가 알게된 선생님은 작은교회 섬겨주시겠다고 무료로 몇주간 강습을 해주셨고 어린이 주일이되면 헬륨풍선을 가득 예배당 밖에 띄어놓고 가시고 감사절기때는 열매 장식도 해주셨다. 건축이 진행되어질때부터 입당예배때 풍선장식은 당신이 꼭 하고싶으니 연락을 주라고 했었다.

건축기간이 길어지면서 중간중간 입당예배 언제냐고 물으셨던 선생님은 건축사정 아시고 함께 기도해주셨다. 입당예배 날짜가 정해지고 바쁜 선생님에게 망설임끝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입당예배 날 보자고 하셨다. 입당예배 당일날 이른아침 혼자 풍선장식을 끝내놓으시고 급한일 있어서 얼굴 못보고 간다고 전화가 왔었다. 점심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자고 권했지만 다른 곳에 장식이 있어서 못 오실것 같다고 했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풍선 사진을 찍어서 감사문자를 드렸는데 이런답장이 왔었다. - "친정아버지 상중에 잠깐 들려 아치만 설치하고 가느라 무슨정신으로 했는지 ~ 나중에 사진 보면 후회를 많이할듯 싶습니다." -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는데 안받으셔서 문자를 했더니 -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갑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친정아버지 상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른아침 풍선장식을 하러 오신 선생님의 발걸음과 손길에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다. 그리고 풍선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다.

[광양시 광양읍 주령마을회관 전도 이야기]



지인의 연락을 받고 어느 한적한 마을에 할머니 한분을 찾아뵈러 갔다. 큰 도로를 지날때 마다 그냥 산으로만 보였던 그곳은 도로에서 옆길로 꼬불꼬불 한참을 들어가니 예쁜 마을이 보였다. 주소를 들고 할머니댁을 찾았지만 계시지 않아서 마을회관에 들렀는데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앉아계셨다. 일단 우리 소개를 하고 가져간 다과를 함께먹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부드럽고 관대하게 받아드렸다. 그 마을에 90이 넘으신 어느할머니 한분과 며느리만 교회에 나가시고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마을 이장님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소개했다.

"마을사람들에게 무슨일 있을때마다 묵묵히 기도해 주고, 이집 며느리는 또 몇일 보이지 않기에 집에 찾아갔는데 마을에 어려운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할머니와 며느리 기도의 삶을 통해 먼저 믿는 자의 본이됨이 어떤 것인지 배울수 있었다.

우리가 찾아가 00할머니께 90세 할머니와 교회 함께 가시라고 말씀드리니 귀가 멀어 잘 들리지 않는디 가면 뭘 듣겠냐며 안간다고 손서레를 치셨다.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을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 찾아뵈었을때 할머니는 "그때 자네들 오고나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할매(90세 할머니) 다니는 교회 나가요~" 라고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렇게 한 분 한분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어 그 마을이 예수마을이 되어지길 기도한다.

[교회 근처에 사는 아기 엄마 전도 이야기]

막내 어린이집 데릴러 가는길에 어린아이를 업고 큰아이는 자전거를 태우고 땀흘리며 걷고 있는 아이엄마를 만났다. 근처에 산다고 해서 그 집 근처까지 자전거를 밀어주며 복음을 전하고 아기엄마 녀두리를 들어주었다. 모태신앙이고 청년시절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 안나간지 너무오래되서 지금 당장은 교회를 가긴 힘들것 같고 시부모님이랑 살고 있으니 자유롭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하점이 어린이집 가는길에 양파를 갔다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집으로 들어오라며 맛있는 커피를 건네주었다. 한참후 아기(민호)도 심심해 하니까 우리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길을 나선다.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나에게 여기가 집이냐고 교회 사모님이냐고 놀란눈으로 물어봤다. 부담스러워하는 아기엄마에게 차한잔 마시고 가라는 말을 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들어와서 예배당 구경도 하고 교육관에서 아이와 함께 한참을 놀다가 갔다. 그 이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 감사하다.

평일엔 2층 교육관에서 이야기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곤 하지만 주일엔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관계와 복음 전함을 통해 아기엄마가 주께로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상처가 많아서 극단적일때가 많은 00씨가 예수님을 다시만나고 회복되길 기도 한다.

[전도 대상자였던 손용옥 성도님]



손용옥 성도님이 지난주일에 아침일찍 전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다.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연향동 교회 예배당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버겁고 가정의 여러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했는데 오천동으로 이사한후 1층이 예배당이니 예배드리러 갈라요~ 했던 약속들이 지난주에 지켜졌다.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찬양도 못 불러서 안갈라요 했던 분이 예배의자에 앉아 입술을 움직이는걸 보며 참으로 감사했다. 손용옥 성도님에게 예배의 갈급함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느낄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를 통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 지고 모든 형제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알아가길 기도한다.

[노방전도 이야기]



노방전도를 하면서 만나는 한분한분들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진다. 거리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내가 건네는 전도지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귀에 들려줄수 있으니 너무도 감사하다. 짜증을 내는 사람, 버리는 사람, 혼을 내는 할아버지들이 종종 있지만 그 또한 감사하다. 거절 당할때마다 나의 열심은 더 커져서 더욱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서리라 다짐해본다. 오천동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서 주께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주일새벽 성도님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부흥회다. 아무도 없는 2층에서 핸드폰으로 찬양을 듣고 부르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내 손은 즐거이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든다. 반찬 하나하나에 감사와 기쁨의 감미료를 넣어본다.^^ 이사오기전 교회에 바깥 베란다에 만들어진 작은 부엌안에서 밥을 지을때에도 물론 감사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와 비교할수 없는 좋은환경을 주셨고 나만의 넓은 조리대도 만들어주셔서 힘듦이 느껴지지 않는것 같다. 남편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먹이고, 나는 영혼들의 육을 살찌우는 식사를 준비함이 값진 특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영광에 늘 만족하며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리라 다짐해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역자로, 충성된 사모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내보립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가신 발자취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렵니다.

[기도 제목]

- 교회 봉사자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차량운전자, 반주자 등)
주일 아침에 1시간 이상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11시 예배 시간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오후에도 차량운전 때문에 새신자 교육, 성경공부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성문교회가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8년 동안 순천 연향동 사역을 마치고, 한 사람의 귀한 섬김으로 출발하여, 여러 동역자님들에 물질과 헌신으로 예배당을 건축하여, 순천 오천지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립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현재 전체교인 25~30명 출석)
-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 바랍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 사기로 은행 대출 빚이 늘어났습니다.)
- 성문교회는 교인들 절반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져서,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 목회자 건강을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허리 디스크로 도수치료 중.)
- 교회 이전(예배당 건축 관계로) 후 2년 정도 쉬었던 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물품구입과 전도지 제작에 필요한 재정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전도 및 후원 물품]

- (1) 전도물품 구입비 후원 (분말비타민C,말랑카우,홍삼캔디수)
- (2) 찬송가 반주기 구입비 후원 (반주기가 없어서 앱을 사용 중)
- (3) 교회 김치냉장고 후원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